

## ※ 별첨: 보고서 1부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1) 유학생 보험: 유학생 보험은 출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뜻합니다. 크게 파견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과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파견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고 학비 및 홈스테이 비용 결제시 같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파견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을 가입시 파견학교 홈스테이 네트워크 와 충북대학교 사이를 중개해주시는 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 하고 싶으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유학생 보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적당한 가격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출국날 부터 입국 날 까지 넉넉하게 잡아두는것이 좋습니다.

2) 비자: 파견 해당국가와의 이중국적, 영주권, 시민권자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파견국가 대사관에 미리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대체로 해외에 비하여 처리가 빠르게 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3개월 전후로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에 체류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비하여 오래 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확인하지 않을시 가끔씩 순위가 밀리거나 대사관에서 신경을 쓰지 못하여 서류가 안들어가는 일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국가에서의 인턴쉽(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필요하니 필요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항공권: 캐나다는 '에어 캐나다' 항공이 대부분의 항공편을 담당합니다. 자금이 넉넉하시고 편한것을 원하시면 '대한항공'을 택하시고 영어에 자신있고 자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에어 캐나다'를 택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나라의 날씨 기후 특성과 더불어 피어슨 국제 공항의 서비스는 항공편 결항, 연기등의 일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학기 시작하기전 캐나다 입국의 경우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입국하시는게 좋습니다. 티켓의 경우 '에어 캐나다'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게 가장 저렴하고 그 외의 항공편의 경우 항공권 비교 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비교하여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격은 주로 낮보다 밤, 주말 보다 주중 목요일 혹은 화요일 같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날짜와 시간대에 저렴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이점 확인 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 나. 필요 물품(집 꾸리기)

캐나다의 겨울은 한국과 다릅니다. 온도가 단순히 낮을 뿐만 아니라 폭설 및 눈폭풍이 잦습니다. 따라서 온도 유지와 바람막이 그리고 방수기능이 있는 기능성 패딩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 외의 물품들은 항공기 탑승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한 필요한것들을 넣어 가시면 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110V 사용 국가 이므로 프리볼트 제품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전자제품의 경우 캐나다에 가서 구입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수업과 과제 대부분이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많으므로 랩탑은 필수입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 인종을 많이 포함한 국가로 유명합니다.인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그중 인도와 중국인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벤쿠버, 토론토 지역에 주로 아시아 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북동쪽 지역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지역쪽으로 갈수록 백인들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식 언어 입니다. 캐나다식 영어는 존재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한 영어를 사용합니다. 미국과 다른 슬랭, 은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역적 특성이므로 일반적인 영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 쪽은 대부분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이며 퀘벡 주쪽으로 갈수록 불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캐나다의 물가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가격 형성대가 높은편이며 미국과 동일하게 팁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세금 책정 방식과 직원 임금 지불 방식이 다르므로 적정한 선(10~15%)에서 팁을 책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식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요리하는 경우 외식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다만 식자재같은 경우 홈스테이의 종교에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구매하는것이 좋습니다. 식료품점은 크게 베이직(FOOD BASICS), 노프릴스(NOFRILLS), 푸드 월마트(Warmart), 자스(Zehrs), 롱고스(Longos),메트로(Metro)가 있습니다. 각각 식료품의 질과 가격이 다르니 지갑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비싼 식료품점 순입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19년도에 뉴질랜드로 1개월간 교환학생을 갔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재밌게 잘 지냈지만 영어가 영국식 발음, 뉴질랜드 액센트가 강하여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캐나다로 국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가 흔치 않은 경험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어로 에세이 쓰기와 말하기가 잘 훈련되지 않는 편이 많아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영어를 좀더 자세히 정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하여 갔다왔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공항은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Pearson International, YYZ)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토론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나 실질적인 주소는 미시소거(Mississauga)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우리나라의 광역 버스 와 같은 GO BUS(GO Transit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갈 수도 있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GO Train을 이용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버스 이용시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토론토는 또한 교통체증이 많은것으로 유명하여 시간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구엘프 대학교에서 수강하게 될 수업은 ELP(English Learning Program)으로 본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듣기 전 필요한 어학 인증 프로그램(English Certificate Program)입니다. 따라서 전공수업을 기대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Reading, Speaking&Listening, Writing을 가르치지만 한국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입학하기 전 반 편성을 위한 레벨 테스트(Placement test)를 온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레벨에 따라 다른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 수준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실질적인 시사에 대한 토론 혹은 강의를 듣게 될 경우 요구하는 노트 작성 요령,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의견 제시, 에세이 작성과 같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토플 험시과 유사합니다. 레벨4~5의 경우 기초적인 문법이나 어휘와 같은 것에 수업이 중점으로 맞춰져 있고 레벨 6~8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로 하는 수업과 더불어 기본적인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레벨입니다. 레벨 9~10은 그 전 단계의 레벨의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옥스포드(Oxford)와 피어슨(Pearson) 교재를 사용합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거주공간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 옆에 있는 레지던스 (Residence), 홈스테이 그리고 셰어룸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홈스테이에 배정 될 것이며 부득이한 개인의 요청이나 홈스테이 배정의 문제가 있다면 레지던스에 배정될 것입니다. 레지던스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셰어룸 같은경우 집주인과 계약을 하여 월세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혼자 혹은 룸메이트를 구하여 같이 사는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에 있는 RCA 기구를 찾아가면 필요한 서류, 권리, 보험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ELP 프로그램 측에서 매주 주말 마다 혹은 주중의 한 날짜마다 야외활동을 계획하여 이메일로 알림을 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 토론토 도시 투어, 학교 자체 프로그램 진행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 알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학교 체육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당 38불 정도면 수영, 휘트니스, 농구, 탁구와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댄스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 대부분 점심은 개인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UC(University Center)에 있는 카페테리아와 Creelman Hall에 있는 카페테리아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맛은 후자가 좋습니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 외의 선택사항으로는 핫도그 매점(Bob's Hotdog)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 자주 애용했습니다. 핫도그 매점과 Bullring이라는 카페제외 학교 모든 곳의 결제 시스템은 카드만 가능합니다. 친구들과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구엘프 시내로 가야합니다. 99N(Northbound)행 마을 버스를 타면 구엘프 다운타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레스토랑으로는 Bread bar, Wok's chinese, 등이 있습니다.

교통은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구엘프 시 내에서는 어디를 가던 무료입니다. 그외의 지역은 GO Transit을 이용한 버스, 기차, 혹은 우버(Uber)를 이용해야합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를 동시에 가진 멋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구엘프나 토론토쪽에서만 있을때는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첫 학기와 두번째 학기 사이 2주간의 휴식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잘 활용하여 북동쪽으로 여행하는 일정을 잡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추천하는 경로로는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퀘벡 시티(Quebec city)를 먼저 방문하여 둘러보고 기차(VIA Train)을 이용하여 몬트리올(Montreal)로 이동하여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고 다시 기차나 버스등을 이용하여 오타와 시청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면 캐나다에는 Wonderland(Vaughan지역)이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토론토 시내에서 위쪽에 위치해 있고 구엘프에서 버스를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학교를 가게 되면 예상과 다르게 아시아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서로 다 같이 잘 지내고 재밌고 좋은 추억과 더불어 어학 실력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